

1960년대 일본번역문학의 수용과 전집의 발간

—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을 중심으로

이종호*

1. 서론
2. '4.19'와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의 출현
3. '세대론'과 일본문학 수용의 논리
4. 일본번역문학 수용론에 대한 비판
5.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1960년대라는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이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과 일본번역문학에 대한 남한 사회의 수용론을 분석하였다. 4.19라는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한국사회에 등장한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은 <세계전후문학전집>의 기획 하에 4.19세대를 구매타겟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미적취향과 독서욕망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문화 상품이었다. 공적영역에서 일본문화 수입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대론에 기반을 둔 신구문화사의 설득논리는 대등한 문화적 가치교환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전후'와 일본의 '전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편집위원들이 재현해 내는 한국과 일본 전후문학의 구체적 상들은 대등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비록 세대론이나 민족주의의 외장을 두르고 있다 하

* 동국대학교 강사

더라도, 일본문학 수용을 찬성/반대하는 논리 이면에는 일본문화(문학)에 대한 강한 열등의식이 작용하고 있었으며, 일본문학 수용을 비판하는 논의들은 문단은 물론이거니와 출판시장, 한국사회 내부를 향함으로써 단순한 비판을 넘어 반성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주제어: 1960년대, 4.19, 일본번역문학, 세계문학, 전후문학,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 작품집, 이어령, 세대론, 수용론, 일본문화에 대한 열등의식, 출판시장, 번역)

1. 서론

본 논문은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집』(1960년 8월 발간)을 중심으로 1960년대라는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 일본번역문학선집이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과 당대 전개되었던 일본 번역문학의 수용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일본문학의 번역은 폭발적이었다. 반공과 반일정책을 기조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며 남한사회를 통제하였던 이승만 정권이 4.19와 더불어 무너지면서, 해방 이후 금기시되었던 일본문화는 남한 사회의 공적 영역에 거리낌 없이 등장하게 된다.¹⁾ 선집과 전집, 단행본 출판을 가리지 않고 이름도 생소한 군소출판사들이 앞 다투어 일본문학의 번역출판에 뛰어들었으며, 한국의 대중독자들은 이에 열렬히 반응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4.19와 5.16으로 상징되는 1960년대의 시대적 특수성과 일본문화에 대한 ‘향수’와 ‘호기심’이 촉발한 새로운 읽을거리에 대한 독서대중의 욕망, 그리고 출판시장의 불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던 출판자

1) 『全國에 몰아치는 日本風』, 『사상계』, 사상계사, 1960년 11월호, 159-161쪽; 『새 共和國 誕生前과 后 ㉔ 倭色 붐』, 『경향신문』, 1960.12.28, 3면 참조.

본의 현실적 이해가 결합함으로써, 1960년대 남한출판시장에는 세계문학 혹은 한국문학과 경쟁하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일본번역문학이 (재)등장하게 된 것이다.²⁾

1960년대 한국사회에 수많은 일본문학 선집과 전집들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³⁾ 본고가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①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

2) 1960년대 남한출판시장에서 생산·유통·소비되었던 일본번역문학에 대한 선구적 작업으로는 강우원용의 『1960년대 일본문학 번역물과 한국』(『일본학보』 제93집, 2012.11)과 『1960년대 초기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일본소설의 번역물과 한국 독자』(『일본학보』 제97집, 2013.11), 이한정의 『일본문학의 번역과 한국문학』(『현대문학의 연구』 제55집, 2015.2)가 대표적이다.

강우원용은 『1960년대 일본문학 번역물과 한국』을 통해 당대 일본문학의 붐을 수용자적 측면(일본문화에 대한 중장년층의 ‘향수’와 해방 후 세대의 ‘호기심’)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후속 작업인 『1960년대 초기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일본소설의 번역물과 한국 독자』에서는 1960년대 초기 베스트셀러였던 『만가』(하라다 야스코)와 『가정교사』(이시자가 요지로), 『김약국의 딸들』(박경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시대 유행했던 일본대중소설과 박경리의 소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작품들 간의 유사성(대중적 요소들)이 강우원용의 주장처럼 일본대중소설에서 ‘학습’된 것인지는 보다 세심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식민지 시기 이래로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남한 사회의 대중·통속소설들의 구성적 특수성과 박경리의 소설이 어떤 측면에서 변별되며, 나아가 『김약국의 딸들』에서 발견되는 ‘학습’된 대중적 요소들이 어떤 측면에서 일본대중소설만의 고유한 특수성인지의 여부가 드러나야 하는 까닭이다.

강우원용의 작업이 1960년대 번역된 일본 단행본 출판물에 대한 수용자적 측면의 분석이라면, 이한정의 『일본문학의 번역과 한국문학』은 당대 남한출판시장에서 발간된 일본문학선·전집에 대한 통시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한정은 1960년대 남한출판시장에서 유통되었던 일본번역문학이 서구문학에 대항하기 위한 ‘동류’ 의식의 차원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인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문학이 남한 문학장 내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참조점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3) 1960년대 발간되었던 일본문학선집과 전집에 대한 목록은 이한정의 『일본문학의 번역과 한국문학』(『현대문학의 연구』 제55집, 2015.2) 8쪽과 김병철의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상)』(을유문화사, 1998) 제9절 〈일본문학의 번역〉 337-356쪽을 참고할 것.

집』이 4.19라는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1960년대 남한출판시장에 ‘출현’한 최초의 완결된 형태의 문학선집이라는 점이다.⁴⁾ 비록 시기적으로 선진문화사의 『국역일본문학선집』이 한 달여의 차이로 앞서기는 하나 전체 10권이라는 애초의 기획과 달리 완결을 거두지 못했으며,⁵⁾ 이후 청

4) 신구문화사 『일본문제작품집』은 1960년에 8월에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1962년에 발행된 것으로 다루어진다. 번역문화사 연구에서 선구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김병철의 『한국현대번역문화사연구(상)』(을유문화사, 1998)에서도 신구문화사 선집이 1962년에 발행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오류는 연구자의 실수라기보다 전적으로 신구문화사의 출판관행에 의한 것이다. 신구문화사의 경우 판권란의 인쇄·발행일 정보가 부정확하여 종종 연도의 착오를 초래한다. 신구문화사가 전국적인 규모의 월부외판 조직을 갖추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도적’ 오기는 영업적인 이익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전집의 제작 비용이 물가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초판 발행’으로 표기함으로써 출판시장의 가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신구문화사의 〈세계전후문학전집〉 뿐만 아니라, 〈현대한국문학전집〉에서도 발견되는 까닭에 신구문화사의 자료들을 검토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위는 염무웅의 지적처럼, “초판발행의 날짜 전체를 지워버리는 행위는 목과할 수 없는 출판 질서의 교란이며, 문학연구자들에 대한 중대한 우롱”(염무웅, 『책 읽기, 글쓰기, 책 만들기』, 『근대서지』 제4호, 2011, 36쪽)이다.

5) 『국역 일본문학선집』에 대한 언급은 『경향신문』 1960.7.18. 일자 「여적」에서 발견된다. 『국역 일본문학선집』의 발간 시점은 기사의 내용을 감안할 때, 6월이나 7월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 1960.9.21. 일자에 『국역일본문학선집』의 2회 배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적 광고가 실리는데, 이를 통해 일부이기는 하나 『국역 일본문학선집』의 기획을 엿볼 수 있다. 선진문화사는 “대가의 대작을 엄선 완역한 장편소설의 전집”이자 “일본문학의 진모를 파악하는데 최적한 전집”이라 선전하며 독자들의 구매력을 자극한다. 제1회 배포 선집에는 「도련님」, 「波濤」, 「비틀거리는美德」이, 제2회 배포 선집에는 「나만 좋으면」, 「열쇠」, 「푸른 山脈」이, 그리고 10월 초로 예정된 제3회 배포 선집에는 「羅生門·코」, 「第二의 接物」, 「放浪記」, 「火鳥」가 수록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후 출판시장에서 『국역일본문학선집』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회부터 제3회 선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 그대로 청운사 『일본문학선집』에 수록되어 재발간 된다는 사실이다. 남한 출판시장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집의 지형을 매매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있었음을 고려할 때, 『국역 일본문학선집』은 출판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애초 기획과 달리 증도에 발간이 중단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운사에서 『일본문학선집』(전체 7권)이라는 제목으로 완간되었다. 또한 ②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은 일본의 저명한 문학상 수상작품들을 중심으로 선집을 구성하는 한편, 문학사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작가 연보, 작품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이후 발간되는 여타 문학선집들의 기획 및 구성에 있어 롤 모델로서 기능했다. 나아가 ③ <세계전후문학전집>이라는 기획 속에서 『한국전후문제작품집』(1960년 7월)과 나란히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문학이라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설정 혹은 상상되었던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식민지 시기 제국 일본을 통해 세계문학을 ‘상상’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 이른바 ‘국민문학’ Vs ‘국민문학’이라는 대등한 구도 속에서 <세계전후문학전집>이라는 기획을 통해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일본문학의 역학적 관계를 재현해 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 신구문화사가 한국전쟁 이후 국어국문학 관련 서적들을 주로 출판해온 건실한 출판 자본이었음을 고려할 때, 남한사회에서 일본문학선집 발간의 타당성을 내세우는 신구문화사의 설득논리는 주목을 요한다. 남한문학장 내부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본문화의 침투를 염려하며 연일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신구문화사 선집이 ‘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문학전집과 한국문학전집을 발간하고 있었던 메이저 출판사들(을유문화사, 정음사, 동아출판사, 민중서관 등)이 일본문학선집 기획 및 출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집 발간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왔음을 고려할 때, 남한 출판계에서 나름의 인지도를 획득하고 있었던 신구문화가 보여준 이러한 행보는 ‘문제적’이었다.

해방 이후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이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탈)식민지적 강박 속에서 신구문화

사 선집의 출현은 많은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번역문학이란 민족문학을 더욱 고차원의 세계에까지 이끌고 가서 이것을 세계문학에까지 지향시키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 토대”⁶⁾라는 원론적 인식이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1960년대 한국사회에서 일본문학이 과연 번역문학으로서 그 존재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일본에 대한 “극도의 열등의식과 반발에서 오는 우월감, 이런 좀 비정상적인 감정이 지배적”⁷⁾인 상황 속에서 나름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구문화사가 내세우는 수용의 논리는 문학장은 물론이거니와 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을까? 나아가 서구중심의 세계문학이라는 지형도 위에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남북구의 문학과 ‘대등’하게 배치하는 전집 구성 주체들의 정치적 의식과 무의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신구문화사 『전후일본문제작품집』을 남한 출판 시장은 물론 문학장 내·외부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구문화사 『전후일본문제작품집』이 1960년대라는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 4.19라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남한의 출판시장에 ‘출현’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는 한편, 전집 발간과 관련된 당시 자료들(신문 및 잡지 기사, 간행사 및 역자 후기 등)을 바탕으로 해방 이후 남한의 공적영역에 등장한 일본문학(선집)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일본번역문학의 수용과 관련하여 남한문학장에서 전개되었던 다양한 논의들을 살피고자 한다.

6) 이봉래, 「세계문학의 영향(하)」, 『경향신문』, 1953.3.24., 2면.

7) 「全國에 몰아치는 日本風」, 『사상계』, 사상계사, 1960년 11월호, 160쪽.

2. '4.19'와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의 출현

일본문화에 대한 대중적 소비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1960년 8월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이 발간된다. 애초에 전 7권으로 기획되었던 〈세계전후문학전집〉의 구성 속에서,⁸⁾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은 맨 마지막 권으로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권인 『한국전후문제작품집』에 연이어 출간되는 상황은 흥미롭다.

신구문화사 〈전집〉의 전체 구도 속에서 한국문화와 일본문화가 각각 1권과 7권을 차지하며,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남북구 문학이 차례대로 그 중심에 놓이게 되는 일련의 배치는 세계문학에 대한 〈전집〉 편집진들의 정치적 (무)의식을 드러낸다. “지리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지호지간이지만 정치상으로 볼 때 현해탄은 태평양보다도 멀었다.”⁹⁾ 라는 일본문학선집의 서문이 암시하듯이, 신구문화사의 〈전집〉 구성은

8) 신구문화사에서 기획·발간한 〈세계전후문학전집〉은 전체 10권으로 이루어져있다. 염무웅의 회고에 따르면 〈세계전후문학전집〉은 1960년 7월 『한국전후문제작품집』의 간행을 시작으로 전7권으로 기획된 전집이었다. 추후 독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힘입어 『한국전후문제작품집』과 『세계전후문제작품집』, 『세계전후문제작품회곡·씨나리오집』이 추가되어 1962년 3월 전10권으로 완간되었다고 한다.(염무웅, 『책읽기, 글쓰기, 책만들기』, 『근대서지4』, 근대서지학회, 2011.12, 32쪽 참고) 애초에 신구문화사의 〈세계전후문학전집〉은 중·단편 소설 위주의 선집들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전후문학전집〉의 구성적 특수성은 크게 3부분으로 분절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한국과 미국, 불란서, 영국, 독일, 남북구(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이스라엘, 그리스), 일본이라는 로컬리티로 구성되는 세계문학의 전체적인 상과 한국과 세계라는 이분법적 구도속에서 재현되는 세계문학의 상, 마지막으로 회곡과 씨나리오의 장르적 구성 속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영국, 이탈리아로 구축되는 세계문학 상이 그것이다. 신구문화사 〈세계전후문학전집〉이 재현하는 세계문학의 구성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은 추후 작업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9) 『이 글을 읽는 분에게』, 『일본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0, 2쪽.

편집주체들의 (탈)식민주의적 강박과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구축된 ‘전후’의 세계질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후’라는 시대적 구분을 전면 에 내세우며 〈전집〉의 편집진들이 그려낸 세계문학의 조감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구축된 반공블록에 포함되어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과 ‘한국’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체제 속으로 편입됨으로써 제국주의적 과거와 무책임하게 단절되었던 일본, 그리고 식민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미·소 냉전의 구도 속에서 6·25라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이 〈세계전후문학전집〉의 기획을 통하여 서로 어색한 조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누보로망과 독일의 4·7그룹, 영국의 앵그리 영맨, 미국의 비트족, 일본의 태양족 등 전후 세대의 사고 양식과 행동 방식을 그린 문학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¹⁰⁾ 〈세계전후문학전집〉은 1960년대 남한 출판시장에서 세계문학전집시장을 삼분하고 있었던 을유문화사와 정음사 전집과는 애초부터 차별화되는 기획이었다. 신구문화사는 한국에 소개된 적이 없는 신인들의 작품과 문학상 수상작들을 〈전집〉에 수록하였으며, 각권마다 전후 15년의 문학사와 작품해설 및 작가의 창작노트를 수록함으로써 편집의 신선함을 추구하였다. 최정희(1906년생), 이효상(1906년생), 유치환(1908년생), 백철(1908년생), 김진수(1909년생), 안수길(1911년생), 오영진(1916년생), 이청기(1919년생), 조지훈(1920년생), 여석기(1922년생), 김봉구(1922년생), 이어령(1934년생)이 〈전집〉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기획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르에 따라 편집위원의 구성이 달라졌다.¹¹⁾

10) 김치수, 『현대세계문학전집을 간행할 무렵』, 『출판과 교육에 바친 열정』, 우촌기념사업회출판부, 1992, 181쪽.

편집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거의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문인과 학자, 평론가가 ‘공존’하고 있으며, 전후 남한문단 내에서 주도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던 <한국문학가협회> 소속 작가들(김동리, 서정주, 조연현 등)보다 오히려 널리 대중적 인지도를 획득하고 있었던 원로 문인들이 편집위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전후세대의 저항적인 문학적 실천들을 담고 있는 <전집>의 기획의도와 달리 편집진들의 구성은 ‘균질’하지 않으며, 한국의 전후세대라 칭할 수 있는 인물은 이어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신구문화사 <세계전후문학전집>의 주된 구매계층이 20대 (문학)청년들이었음을 고려할 때, <전집>의 편집위원으로 20대 문학평론가 이어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경쟁력으로 작용하였을 터이다. 당대 남한사회에서 이어령의 문학적 위상은 원로 문인들의 그것과 맞먹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염무웅의 회고에 따르면 <세계전후문학전집>의 “참신한 기획과 현대적인 외양은 4.19를 겪은 젊은 세대의 감각과 이념을 가감 없이 대변하는 것”이었으며, 이어령은 <세계전후문학전집> 기획에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¹²⁾ ‘전후문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

11) 신구문화사 『전후세계문학전집』의 편집위원 구성 및 전집의 발행일(발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후문제작품집』(백철, 최정희, 안수길, 이어령/1960.7)
2. 『미국전후문제작품집』(백철, 이효상, 안수길, 여석기, 김봉구, 이어령/1960.11)
3. 『불란서전후문제작품집』(백철, 이효상, 안수길, 여석기, 김봉구, 이어령/1961.1)
4. 『영국전후문제작품집』(백철, 이효상, 안수길, 여석기, 김봉구, 이어령/1961.4)
5. 『독일전후문제작품집』(백철, 이효상, 안수길, 여석기, 김봉구, 이어령/1961.6)
6. 『남북구전후문제작품집』(백철, 이효상, 안수길, 여석기, 김봉구, 이어령/1961.5)
7. 『일본전후문제작품집』(백철, 최정희, 안수길/1960.8)
8. 『한국전후문제시집』(백철, 유치환, 조지훈, 이어령/1961.10)
9. 『세계전후문제시집』(백철, 이효상, 조지훈, 김봉구, 이어령/1962.1)
10. 『세계전후문제회곡·씨나리오집』(백철, 오영진, 김진수, 여석기, 이청기, 이어령/1962.3)

로 세계문학을 조망하는 일련의 작업은 기존 메이저 출판사들이 내놓은 세계문학전집과는 전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을유문화사와 정음사의 세계문학전집이 일본의 신조사판 세계문학전집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면,¹³⁾ 〈세계전후문학전집〉은 일본책을 참고하지 않고 외국문학을 직수입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전집이었다.¹⁴⁾

비록 신구문화사 역시 다양한 편집위원들을 위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사조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나』를 뚜렷이 인식하면서 우리의 시대를 기록”¹⁵⁾하는 것이 ‘결투의 윤리’임을 내세웠던 이어령에게 책임 편집을 맡기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을 것이다. 1950년대 후반 이어령이 남한 문학장 내에서 보여주었던 다양한 문학적 실천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0대 후반의 이어령이 〈세계전후문학전집〉의 실무를 담당하며 편집의 방향과 작가 및 번역자 선택의 중임을 맡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학교재와 국어국문학 관련 서적을 주로 출판하였던 신구문화사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전집출판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 첫 기획으로서 『한국전후문예작품집』과 『일본전후문예작품집』을 출판 시장에 내놓았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어령은 회고를 통해 〈세계전후문학전집〉의 기획이 4·19 혁명이

12) 이어령이 신구문화사 〈세계전후문학전집〉의 기획자이자 실질적인 책임편집자였다는 사실은 이어령 본인의 회고(이어령, 『이종의 사장과 세계전후문학전집』, 『출판과 교육에 바친 열정』, 우촌기념사업회출판부, 1992, 144-148쪽)와 염무웅의 회고(염무웅, 『책읽기, 글쓰기, 책만들기』, 『근대서지』 제4호, 2011.12, 32쪽)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구문화사 설립 초기부터 총무와 기타 실무를 담당했던 원선자 교수(전 신구대학 명예교수)와의 인터뷰(2015년 6월 9일)를 통해 재차 확인하였다.

13) 조영일, 『우리는 과연 세계문학전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작가세계』 22, 2010.6, 342쪽.

14) 이어령, 『이종의 사장과 세계전후문학전집』, 『출판과 교육에 바친 열정』, 우촌기념사업회출판부, 1992, 147쪽.

15) 이어령, 『主語 없는 비극』, 『저항의 문학』, 예문관, 1965, 27쪽.

진행되는 가운데 관철동 뒷골목의 어느 작은 다방에서 본인의 제안과 신구문화사 이종익 사장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¹⁶⁾ 길거리에서 함성을 지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4·19세대)에게 새로운 정신을 길러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남한의 출판시장이 일부외판에 기반을 둔 전집출판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으며, 그러한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신구문화사가 대학교재 출판에서 전집출판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중소출판사에서 메이저출판사로 거듭나게 되는 일련의 상황은 <세계전후문학전집>의 기획이 단순히 이어령의 회고처럼 낭만적인 서사 속에서만 전개된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세계전후문학전집>에 앞서 임종국의 주도하에 <한국시인전집>을 기획하였으나 결국 상업적으로 실패를 경험했던 신구문화사는 당시 ‘젊은이의 기수’로 불리던 이어령에게 <전집> 기획의 실무를 맡김으로써 처음부터 4·19세대를 구매타겟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미적 취향과 독서 욕망에 가장 적합한 문화콘텐츠를 기획·출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그것이 낭만적인 서사 속에서 재현된 기억이라 하더라도 이어령이 <전집> 기획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장면은 흥미롭다. 자신 역시 전후세대에 속한 <잡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인 4·19세대에게 ‘새로운 정신’을 부여하고자 하는 일련의 상황, 나아가 그러한 기획이 <세계전후문학전집>이라는 결과물로 수렴되는 일련의 과정은 신구문화사의 <전집>이 보다 복잡한 맥락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텍스트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16) 이어령, 『이종익 사장과 세계전후문학전집』, 『출판과 교육에 바친 열정』, 우촌기념사업회출판부, 1992, 145쪽.

3. '세대론'과 일본문학 수용의 논리

4.19 이후의 궁핍과 무질서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당시 남한출판시장의 현실은 암담하였다. 독서층은 정국불안에서 오는 정신적인 혼란으로 독서에 파묻힐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독서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과 교육자들은 4.19를 치르느라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며, 경제적 핍박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책을 구매할 여유가 없었다.¹⁷⁾ 해방 후 세대의 일본문화(문학)에 대한 '호기심'과 식민지 시기 젊은 시절을 보냈던 장년층의 '향수'만이 침체된 출판시장에서 일본 문학·붐을 촉발시켰다.¹⁸⁾ 이렇듯 생소한 군소출판사들이 경쟁하듯 출판시장에 뛰어들어 일본문학작품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신구문화사 역시 1960년 7월과 8월에 각각 『한국전후문제작품집』과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을 잇달아 출판시장에 내놓으며 경쟁에 참여한다.

이어령의 회고에 시간적 왜곡이 없다면, 신구문화사의 전집 기획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전집>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루어졌던 것이 4월 혁명의 무렵임을 감안할 때, 고작 3~4개월의 시간 동안 편집위원의 위촉과 작품선정, 해설 및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체 기획 속에서 제일 마지막 권에 해당했던 『일본전후문제작품집』¹⁹⁾이 미국

17) 「하반기까지 출판계 현황」, 『동아일보』, 1960.10.23., 4면.
 18) 강우원용, 「1960년대 일본문학 번역물과 한국 - '호기심'과 '향수'를 둘러싼 독자의 풍속」, 『일본학보』 제93집, 한국일본학회, 2012.11.참고.
 19) 『일본전후문제작품집』에 수록된 작가의 작품과 번역자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白色人」(遠藤周作/정한숙) 2. 「太陽의 季節」(石原愼太郎/신동문)
 3. 「빨거숭이 임금님」(開高健/김동립) 4. 「飼育」(大江健三郎/오상원)
 5. 「나라야마부시 考」(深澤七郎/계용목) 6. 「浮虜記」(大岡昇平/안수길)
 7. 「新聞紙」(三島由紀夫/최정희) 8. 「斜陽」(太宰治/신동문)
 9. 「永遠한 序章」(椎名麟三/선우휘)

과 프랑스, 영국, 독일, 남북국 선집보다 앞서 출간되는 일련의 과정은 출판사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작품의 선택 및 번역자의 선정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할 때, 『한국전후문제작품집』²⁰⁾과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을 우선적으로 기획·발간하는 것은 출판 실무의 곤란함을 해결하는 한편, 일본문학(작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메이저 출판사들이 일본문학선집과 전집 발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국문학 관련 도서 출판으로 나름의 명성을 얻고 있었던 신구문화사가 여타 군소출판사들과 거의 동시에 혹은 그보다 앞서 일본문학선집을 발간하게 되는 상황은 문학장 내·외부로부터의 비난과 질타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전후문제작품집』의 서문(『이 책을 읽는 분에게』)을 통해, ‘흙에서 옥을 찾는 심정’으로 해방 후 15년간 발표된 작품들 가운데 문제작들을 엄선하였으며,²¹⁾ “문학연

20) 『한국전후문제작품집』에 수록된 작가의 작품과 목록은 아래와 같다.

- | | |
|------------------------|-------------------|
| 1. 『요한詩集』(장용학) | 2. 『證人』(박연희) |
| 3. 『流失夢』(손창섭) | 4. 『포인트』(최상규) |
| 5. 『二一三號 住宅』(김광식) | 6. 『古家』(정한숙) |
| 7. 『暗射地圖』(서기원) | 8. 『感情있는 深淵』(한무숙) |
| 9. 『불꽃』(선우휘) | 10. 『소리·김』(송병수) |
| 11. 『不信時代』(박경리) | 12. 『謀反』(오상원) |
| 13. 『明暗』(오영수) | 14. 『張氏一家』(유주현) |
| 15. 『射手』(전광웅) | 16. 『破裂口』(이호철) |
| 17. 『誤發彈』(이범선) | 18. 『흰종이 수염』(하근찬) |
| 19. 『GREY俱樂部 顛末記』(최인훈) | 20. 『大衆管理』(김동립) |
| 21. 『젊은 느티나무』(강신재) | |

21) “해방 후 15년간 발표된 작품들 가운데 문제작들을 엄선”하였다는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서문의 주장과 달리 실제 수록된 작품들은 한국전란을 전후하여 등장한 작가들로 한정되어 있다. 선집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전후15년의 한국소설』에서 백철은 “戰後の 또 하나의 戰後劇”이라는 표현으로 전후 세계문학과 변별되는 한국전후문학의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글에서 백철은 “한국의 전후소설이란 최근 오

구가에겐 자료의 사전이며, 소설공부를 하는 독자에겐 온고지신의 교사이며 또 문학애호가에겐 소설에의 인도자²²⁾가 될 것이라 선언했던 편집주체의 당당함은 『일본전후문제작품집』 서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일본문학 수용의 타당함을 설명하는데 서문의 전부를 할애할 만큼, 선집 발간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편집위원들의 논리 이면에는 짙은 고민의 흔적이 배어있다.

편집위원 명의로 작성된 서문(『이 책을 읽는 이에게』)의 ‘저자’는 모든 것이 재평가될 시기가 온 만큼 “편협 고루한 민족적 감정의 장막을 찢고 일본문학을 대해야 될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적은 ‘과거’의 일본, 즉 “국방색 케에터를 두른 그 포악작인한 제국주의자들”이지 “자유를 사랑할 줄 알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경할 줄 아는 자유진영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현재’의 일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저자’는 작가에게 국적이 더 이상 최후의 조건일 수 없으며, “국적 하나만으로 그들 문학에 금제의 말뚝을 박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세계전후문학전집〉에 〈일본편〉을 포함시키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戰後の日本文學은 지금 世界에 널리 번역 보급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터이다. 우리만 鎖國主義的인 골목길에서 낮잠을 자서는 안 될 것이다. 일종의 文化交流에 대한 價値交換이 시급하다. 따지고 보면 그네들이나 우리는 다같이

년(1954년도 휴전 조약 이후 내외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로 되는 것이며, 오년 내외의 소설이라면 근년의 신인작가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주로 한국전란을 전후하여 등장한 작가들의 소설이 그 대상”임을 밝히며, 〈세계전후문학전집〉의 외국편들과 달리 『한국전후문제작품집』의 문제작으로 신인작가들의 작품이 선정된 전후 사정을 밝히고 있다. (백철, 『戰後十五年의 韓國小說』,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0, 374쪽 참조)

22) 『이 책을 읽는 분에게』, 『한국전후문제작품집』(세계전후문학전집1), 신구문화사, 1960, 3쪽.

亞細亞의 後進性에서 번민하고 있는 黃色皮膚의 人種들이다. 西歐文明의 바람 앞에서 같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文學은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好奇心을 끌고 있으며 또 무엇인가 많은 暗示를 던져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文學과 우리들의 文學을 비교할 수 있는 機會를 갖는다는 것은 興味도 있고 또한 意義도 깊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물안의 개고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戰後世界 동향을 살펴야만 하는 그 作業의 一翼으로서도 日本文學은 그대로 看過할 수 없는 존재다.²³⁾

세계문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문학이 암시하는 바가 있으리라는 ‘저자’의 주장은 이 글에서 다소 피상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서문이라는 글쓰기 방식의 특성상 이러한 압축성은 불가피할 터이다. 그럼에도 서문의 전반부 논리들이 다소 진부하고 통속적일 만큼 원론적인 주장들에 가까웠다면, 후반부의 논의들은 현실적이며 실리 추구적이다. 실제로 전후 냉전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새로이 구축된 세계문학의 구도 속에서 일본문학은 아시아를 대표하며 그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성공한다. 전집의 기획 속에 반영되어 있는 상상적 배치, 즉 〈한국편〉(제1권)과 〈일본편〉(제7권)이 좌·우의 양 극단에 ‘대등’하게 놓이는 구성은 현실을 왜곡한다. 한국이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면, 일본은 우물 ‘밖’ 개구리 혹은 그 이상이었다. 서문의 ‘저자’는 아세아적 후진성이라는 명명법을 사용하여 세계(문학)의 구도 속에서 한국(문학)의 위상을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만,²⁴⁾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전집 편집주체들의 (무)의식 속

23) 『이 책을 읽는 분에게』, 『일본전후문제작품집』(세계전후문학전집7), 신구문화사, 1960. 3쪽.

24) 이한정은 『일본문학의 번역과 한국문학』(『현대문학의 연구』 제55집, 2015.2, 27쪽)에서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의 서문에 언급된 “亞細亞의 後進性에서 번민하고 있는 黃色皮膚의 人種들”이라는 구절을 서구문학과 대결 구도 속에서 일본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동류’ 의식의 표현으로 읽어낸다. 이한정은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의 편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백철이 서문을 작성하였으리라는 가정 하에, 서문에 드러나는 ‘일본문학’에 대한 ‘저자’의 인식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내면화된 ‘일본문학’에

에 존재하는 서구(문학)과 일본(문학)에 대한 열등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상계』와 더불어 당대 청년들에게 널리 읽혔던 종합 교양지 『새벽』 1960년 7월호에는 「일본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당시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유진오와 이어령의 좌담이 실려 있다. 4.19 이후 일본문화 수용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이 글은 주목을 요한다. 이 대답에서 유진오는 혁명 이후 전개된 반동주의적인 일본 붐에 염려를 표하며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어령은 완전한 개방주의를 표방하며 신세대의 자신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일본문화개방에 대한 유진오의 염려를 올드·제네레이션의 열등의식 표출로 인식하며, 이어령은 유진오의 주장을 세대론의 차원에서 반박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대답에서 일본문화 수용을 적극 찬성하며 이어령이 사용하는 용어들과 논리전개방식이 신구문화사 선집의 서문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다.²⁵⁾

대한 어떤 신뢰”(27쪽)의 표현이자 “자기(백철)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일본문학에 특권을 부여하는 자세”(28쪽)의 반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편집위원 명의로 되어 있는 서문을 ‘백철’이 작성한 것이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백철 이외에도 최정희와 안수길이 일본편 선집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전후문제작품집』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韓日戰後文學의 比較檢討』에서 백철이 보여주는 일본전후문학에 대한 이해는 ‘인상담’에 가깝다. 백철은 『韓日戰後文學의 比較檢討』를 작성하게 된 연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실지에 있어서 오랫동안 일본문학작품을 접해보지 못하다가 이번 四, 一九 뒤에 한일의 문학이今後 어느 정도 서로 접근 교류되어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또 구체적으로 출판사에서 그 방면에 관심을 갖도록 내게 중용해 오는 기회도 있고 해서, 오랜간만에 일본의 전후작품중에서 한 두 편의 문제작을 읽어보고 또 그들의 짧은 戰後文學史도 서베이한 결과가 지금 말한바 두 개의 戰後文學(한국의 전후문학과 일본의 전후문학)에 대한 대조적인 인상인 것이다.” (백철, 『韓日戰後文學의 比較檢討』, 『일본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0, 388쪽)

25) 『전후일본문학전집』의 편집진은 백철과 최정희, 안수길이었으며, 이어령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각주11 참조) 그러나 신구문화사 관계자들(이어령, 염무웅, 원선자)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의 서문과 유진오와 이어령의 좌담(「일본을 말한다」)을 서로 겹쳐 읽을 때, 다소 피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던 일본문학수용의 논리들이 보다 선명해진다. 「일본을 말한다」에서 이어령은 신세대가 구세대와 달리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문화를 개방한다 해도 틀는 될지언정 틀는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구미 문화를 섭취하는 「방법」 같은 것을 배우고 또 비교함으로써 자극제가 되어 줄 것”이라 주장한다.²⁶⁾ 주목할 점은 이어령이 세대론을 통해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있지만, 서구에 대한 열등의식을 극복하는데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국가 간의 혹은 문화 간의 가치교환을 위해 열등의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어령은 세대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구세대와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이 서구/구미(歐美)에 대해 아세아적 후진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정함으로써 세계(문학)의 구도 속에서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의 위상을 ‘대등’하게 설정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어령이 상정하고 있는 ‘문화교류에 대한 가치교환’의

의 회고를 참조할 때, 당시 이어령은 <전집> 발간의 실무를 담당하며 처음부터 전집 기획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물론 『전후일본문제작품집』 서문이 ‘편집위원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까닭에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① 이어령이 대담에서 구사하는 용어와 논리가 전집 서문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② 당시 <세계전후문학전집>의 실무 책임자가 이어령이었다는 점, ③ 실제 대담이 이루어진 시점이 『전후일본문학전집』의 발간 준비기간과 겹쳐진다는 점, 마지막으로 ④ 선집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전후일본문제작품집』의 부록에 해당하는 백철의 글(『韓日戰後文學의 比較檢討』)과 <문제성을 찾아서>에 수록되어 있는 최정희의 글이 서문의 어조와 달리 수동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본고에서는 이어령이 『전후일본문제작품집』의 서문을 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리라 추정한다.

26) 유진오·이어령, 「일본을 말한다」, 『새벽』, 1960.7, 127쪽.

측면이다. 이 글에서 이어령은 하나의 <모델케이스>로서 일본이 후진적 요소를 어떻게 서구화하고 소화시키며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가를 한국(문화)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⁷⁾ 그 구체적 사례로 이어령은 후카사와 시치로(深沢七郎)의 『나라야마부시 考』를 언급한다. (이 소설은 계용묵의 번역으로 『일본전후문제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다.) 전통적인 소재를 다루는 일본 작가의 소설적 기법을 한국작가들이 참조함으로써 반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어령은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을 극복하며 ‘대등’한 차원에서의 가치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대론의 차원에서 ‘극복’된 열등의식이란 유진오로 대표되는 구세대와의 대결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설정된 잠재적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어령은 전후세대의 존재론적 특수성이 가치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25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문제와 직접 대결할 수 있었기에 이를 작품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일본)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대론’에 기반을 둔 이어령의 설득 논리는 다분히 감정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비록 세대론의 외장을 두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극도의 열등의식과 반발에서 오는 도덕주의적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²⁸⁾ 그

27) 유진오·이어령, 『일본을 말한다』, 『새벽』, 1960.7, 131쪽.

28) 이어령은 『일본을 말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나는 開放主義를 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自由로 겨누어 겨꾸로 새로운 한국의 힘을 인식시켜주고 싶습니다. 과거에 敵이었던 일본은 二次大戰의 終末과 함께 사라졌으니깐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日本이 아니라 日本의 軍國主義였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유민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우리가 美國人과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가까울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너희들은 정말 인간의 존엄성과 그 自由를 알고 있는가? 그들이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될거예요.” 유진오·이어령, 『일본을 말한다』, 『새벽』, 1960.7, 133쪽.

러나 소설공부를 하는 독자에게 온고지신의 교사이자 문학애호가에게 소설의 인도자가 되리라는 확신과 달리 『한국전후문제작품집』에 수록된 소설들은 한국전쟁 이후 발표된 문단 신진들의 작품이 주를 이룬 반면, 『일본전후문제작품집』에는 일본 유수의 문학상 수상작들이 수록되었다. 세계의 ‘전후’와 한국의 ‘전후’, 그리고 일본의 ‘전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편집위원들이 재현해내는 한국과 일본 전후문학의 구체적 상들은 대등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른바 세계문학의 공간이 국민문학들 간의 경쟁과 투쟁, 불평등의 역학관계가 작동하는 상징투쟁의 장²⁹⁾임을 상기한다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가치교환이란 애초부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불완전한 기획이었던 것이다.

4. 일본번역문학 수용론에 대한 비판

신구문화사 편집진들이 내세우는 설득논리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학 선집 발간에 대한 남한 문학장 내·외의 비판은 계속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일본의 저명 문학상 수상작들을 수록하고 있는 까닭에 작품 선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낮았다. 그러나 비난의 초점은 상품으로서의 ‘질’(문학성)이 아닌 상품 ‘그 자체’(일본문학선집)에 집중되었다. 『일본문학번역과 작가』(『경향신문』, 1960.10.12.)라는 글에서 필자는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집』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다. 물론 비난의 대상이 신구문화사 선집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

29) 오길영, 『민족문화와 세계문학의 역학: 제임스조이스를 중심으로』, 『근대영미소설』 18집 2호, 근대영미소설학회, 2011.8, 7쪽 참조.

으나, “일본에서 일시적인 선풍을 일으켰을지도 모르나 <아프레>적이며 <비트·제네레이션>의 성폭로에 속하는 하등 문제작일 수도 없고 따라서 그 문학적 가치가 그다지 높이 평가될 수도 없을 것”을 지명(知名) 작가들이 동원되어 번역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 비난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의 출현이 출판계는 물론이거니와 창작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는 글쓴이의 비판은 아이러니하게도 출판자본이 아닌 번역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집중된다. 실제로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집』에 참여한 번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한숙·신동문·김동립·오상원·계용묵·안수길·최정희·선우휘 등 당대 남한문단의 원로 및 중견들이 대거 번역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창작가가 번역문학가를 겸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하지만 <기미노나>(그대 이름)가 일본문학자로서 보다는 민족문학가로서 양명되기”를 바란다는 조소에 가까운 비난은 신구문화사 일본문학 선집에 대한 문단 내부의 감정적 대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비난은 일론적인 차원에서 일본문학의 무용론으로 대두되었다.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일본의 문학은 이 역사가 서구문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 개화된 것이고 보면, 우리나라 문학은 일본어와 일본문학을 매개로 했을 뿐 간접적이거나 서구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보면 일본문학이 아직도 구미문학의 영향에서 탈피치 못하고 한국이 구미와 직결될 수 있는 오늘날에서는 일본문학이 전일처럼 어떤 강력한 영향을 한국문학에 줄 수도 없으며 또한 그만한 가치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³⁰⁾

“정치적, 지리적, 언어적인 숙명이 사십년에 가까운 중요한 시기를 본의 아닌 일본과 일본어를 매개로 하여 문학이 성장되었으며, 또 구미의

30) 『일본문학번역과 작가』, 『경향신문』, 1960.10.12., 4면.

사조와 문학작품 대부분이 일본어의 번역을 통하여 작가와 대중에게 전파, 침투³¹⁾해왔음을 전제할 때, 일본문화와 문학이 그저 서구문학 습득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필자의 주장 이면에는 일본문학에 대한 강한 열등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필자의 글에서 드러나는 민족주의적 태도와 '강박'에 가까운 신경질적인 반응, 그리고 번역에 참가한 저명 작가에 대한 조롱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터이다. 물론 세대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겠지만, 남한문단의 기성과 중진들에게 일본문학에 대한 친연성 혹은 열등의식은 서구문학에 대한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남아있었을 것이다. 해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식의 습득에 있어 일본어 서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일본문학은 세계문학으로 나아감에 있어 반드시 참조해야 할 '매개'였다. 일본번역문학에 대한 강력한 부정은 식민지 시기 구축된 일본문학과 한국문학 사이의 '위계'가 한국사회의 기저에서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신구문화사 전집이 팔리기는 하나 일시적인 붐으로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³²⁾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은 출판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는 신구문화사 전집이 콘텐츠의 측면에서 다른 세계문학전집들과 차별화되는 상품적 특수성을 획득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만³³⁾,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신구문화사가 자체적으

31) 이하운, 『일본문학작품의 한국어번역(상)』, 『경향신문』, 1960.9.2., 4면.

32) 『하반기까지의 출판계 현황』, 『동아일보』, 1960.10.23., 4면.

33) 문화상품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신구문화사 <세계전후문학전집>과 을유문화사 <세계문학전집> 낱권의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을유문화사 전집의 제1권인 『분노는 포도처럼』(존·쉬타인백 작·강봉식 역)은 2,000환(1960년 7월 기준), 제5권인 『어떤 시골 신부의 일기·갈멜 수녀들의 대화』(조루주·베르나노스 작·안응렬 역)는 1,600환(1960년 11월 기준), 제20권인 『근대독일단편집』(구기성 역)은 1,800환(1960년 12월 기준)이었으며, 신구문화사의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은 1,600환(1960

로 전국적인 규모의 외판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1960년대 도서유통시스템은 아이러니하게도 출판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메이저급 출판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했던 월부외판시스템으로 인해 빠르게 붕괴되어가고 있었다.³⁴⁾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이름도 생소한 군소출판사들이 앞 다투어 일본번역출판물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1960년대 출판시장에서 잡지와 전집위주의 출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단행본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에 놓여있었다. 당시 출판관계자들에게 의해 독서층 계발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을 정도로 단행본 도서 구매층은 매우 취약하였으며, 이는 서점의 붕괴와 단행본 출판사의 파산, 출판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대 자본이 요구되는 세계문학전집이나 한국문학전집의 기획·출판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군소출판사들은 기존의 전집 지형을 재활용하여 장정만을 달리한 채 동일한 전집과 선집들을 출판시장에 쏟아 내거나, 일본의 대중·통속문학작품들을 번역·소개하여 수많은 단행본들을 만들어낸다. 말하자면, 일본문화에 대해 호기심과 향수를 갖고 있던 문화상품의 소비층들을 출판시장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침체되어있었던 단행본 시장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터이다.

일본번역출판물의 경우 세계문학전집이나 한국문학전집과 달리 전집출판과 단행본 출판 시장으로 양분화 되었으며, 전자보다 후자에 집중되었다. 일본번역문학의 수용에 대한 대부분의 비난이 단행본 출판에

년 9월 기준)에 판매되었다.

34) 1960년대 남한출판시장에 대한 논의는 이종호의 「1960년대 한국문학전집의 발간과 문학정전의 실험 혹은 출판이라는 투기」(『상허학보』 제32집, 상허학회, 2011)을 참조.

집중되는 것 역시 이러한 상황과 연결된다. “일본의 저속한 문학작품의 책임 없는 번역이 일반에게 납득되는 것”³⁵⁾을 염려하며, “무명의 소자본출판사들에 의한 졸역과 오역투성이의 날치기 판”³⁶⁾이 출판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남한출판시장에서 연일 베스트셀러 상위를 차지했던 이시자카 요지로(石坂洋次郎)의 『가정교사』에 대한 한말숙의 논의는 주목을 요한다. 일본번역문학수용에 대한 기존 비판들이 출판사와 번역자를 향한 것이었다면, 한말숙의 비판은 반대로 한국의 작가와 독자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 9호(1964.2)에 실린 『일본문학을狙擊한다』라는 글에서³⁷⁾ 필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독서경험을 떠올리며 “石坂洋次郎 것은 결코 순수문학은 아니지만 또 결코 『저속』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 보다는 ‘짜구려’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사회에서 이시자카 요지로의 소설이 읽힌다는 것은 다행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말숙은 어떤 대학생과의 일화를 소개하며,³⁸⁾ 『가정교사』의 대척점에 한국의 대중소설(유행소설)을 위치시킨다. 이시자카의 『청춘교실』을 ‘黃色소설’로 지칭하며 “일본에서도 로우·브로우(俗衆)의 뒷호주머니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俗物』들이 우리 사회엔 베스트 리딩으로 君臨”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³⁹⁾ 우리나라의 대중소설보다 수준이 높아 『가정

35) 이하운, 『일본문학작품의 한국어번역(하)』, 『경향신문』, 1963.9.3., 4면.

36) 『한국속의 일본을 고발한다』, 『신동아』, 동아일보사, 1964.11, 89쪽.

37) 한말숙, 『일본문학을 저격한다』, 『세대』 9호, 세대사, 1964.2

38) 내 아는 학생이 왔길래 『가정교사』를 읽었느냐고 물으니까 대뜸 하는 말이 『읽고 말구요. <大衆>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大衆>보다는 수준이 높으니까요!』 한다. 그것은 정말인지 거짓인지 통히 읽지 않는 나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소위 유행소설은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다. 어떻게 보면 大衆의 수준이 향상했다는 혹은 향상하고 있다는 현상인 것도 같다. 좋은 일이 아닌가.(『일본문학을狙擊한다』, 『세대』 9호, 1964.2, 226쪽)

39) 최중률, 『한국 속의 일본-문학』, 『세대』 통권 27호, 1965.10, 94쪽.

교사』를 읽는 것이라면 독서대중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독서층의 계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난의 화살은 “대중을 무시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천편일률로 옛것을 되풀이”하는 통속작가들에게 향한다. 신문연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성장해온 대중(통속)소설 장르가 일본번역소설의 홍수 속에 경쟁관계에 놓여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자,⁴⁰⁾ 이후 남한사회에서 대중소설의 문학성이 일본소설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향상될 수 있음을 추측케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작가의 것보다 낫다면 그것을 읽으라.”는 한말숙의 주장은 그녀의 현실 인식이 대중소설의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나아가 한국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가정교사』 이상의 것이 있음을 강조하며 순문학에 대한 독서대중의 자각을 촉구한다. 『일본문학을 狙擊한다』에서 한말숙은 일본번역문학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남한 문단과 순수문학과 대중/통속문학의 관계, 일본소설을 통해 계발되는 독서층의 문제, 돈벌이를 위해 일본번역문학에 집중하는 출판자본과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출판·언론기관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문단과 출판시장을 ‘저격’의 대상에 위치시킴으로써 1960년대 남한 사회에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것이다.

40) 1960년대 남한출판시장에서 번역된 일본대중소설들과 이에 대한 대중적 소비 양상은 강우원용의 『1960년대 초기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일본소설의 번역물과 한국 독자』(『일본학보』 제97집, 2013.11)를 참고.

5. 결론

4·19세대의 역사적 체험과 그들의 문학적 실천을 이야기하는 한 좌담회⁴¹⁾에서 김승옥은 자신이 문학에 투신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회고를 남긴다. 서울대 문리대 불문과에 입학했을 당시 문학에 별 뜻이 없었던 자신이 4·19 이후 번역되기 시작한 일본 문학작품들을 접하게 되면서 ‘소설 쓰기’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과거에 막연하게 헤르만 헤세 읽고 앙드레 지드 읽고 하면서 서양문학을 받았던 느낌”과는 전적으로 다른 느낌을, “아 소설이란 이런 것이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아프고 절실하게 쓸 수 있는 것이로구나.”라는 느낌을 충격적으로 받았다고 한다.⁴²⁾ 한국전쟁 이후 남한사회에서 ‘교양적 지(知)’로 기능하였던 서구중심의 세계문학작품이 아닌 한글로 번역된 일본문학작품들을 읽으며, 소설이 ‘쓸 만한 것’이고 ‘쓸 필요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쟁에 참여했다고 고통 받고 전후에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져버린”⁴³⁾ 일본의 전후 상황을 그려낸 일본의 젊은 작가들처럼, 김승옥 역시 자신이 소년 시절에 겪었던 한국 전쟁에 대해 존재론적인 물음을 던지며 소설 쓰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대학생 때부터 소설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당시에 번역되기 시

41) 2001년 9월 22일, “4월 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표제 하에 〈창작과 비평사〉의 주최로 진행된 이 좌담회는 4·19세대를 대표하는 김병익(문학평론가), 김승옥(소설가), 염무웅(문학평론가), 이성부(시인), 임현영(문학평론가)이 참가하였으며, 이 좌담회의 내용은 『4월 혁명과 한국문학』(창작과 비평사, 2003)의 18-67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42) 최원식·임규찬 편,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3, 30쪽.

43) 최원식·임규찬 편,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3, 30쪽.

작한 일본소설을 읽고 받은 충격과 자극 때문이었다는 김승옥의 회고가지니는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면, 나아가 그러한 회고가 40여년이라는 두터운 기억의 단층을 뚫고 나온 고백⁴⁴⁾임을 전제한다면, 김승옥이 문학에 투신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전후일본작가들의 번역문학에 대한 독서행위가 소설에 대한 장르적 인식과 소설쓰기의 사회적 당위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1960년대 남한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전후일본번역문학의 수용사가 매우 복잡한 층위에서 전개된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김승옥의 개인적 경험을 4·19세대 전체의 문학적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번역소설들이 4·19 이후 남한 출판시장에서 연일 베스트·셀러 1, 2위를 차지하게 되는 일련의 상황은 선집과 전집, 단행본의 다양한 형태로 남한출판시장에 등장하였던 일본번역문학이 당대 독자들에게 끼쳤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일본 색소의 감염 없이 성장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다는 점”⁴⁵⁾에서 8·15 이전에 다소라도 일본교육의 맛을 본 <잡종>과는 다르리라는 전광용의 기대는 4.19 이후 쏟아져 나온 일본번역출판물들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으며, 그가 간절히 원하였던 <순종>에 의해 도래할 <새로운 문학>이란 이상형(Ideal Type)역시 일본 색소의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더욱이 1960년대 일부 젊은 작가들이 서구문학을 수용하는데 있

44) 흥미로운 점은 동시대의 문학인들 가운데 김승옥의 작품에 스며있는 전후일본문학의 흔적을 간파한 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은은 『경향신문』에 연재한 『나의 산하 나의 삶 178』(1994.4.10.)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방금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거리의 전파상 확장장치마다 울려퍼지고 있었고,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을 영화화한 『안개』의 주제가 정훈희의 색정적인 음색으로 퍼지며 일종의 허무주의 정서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김승옥의 문학이 얼마나 전후 일본문학의 측면과 닮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45) 전광용, 『잡종과 순종, 일어모르는 새 대학생의 기대』, 『동아일보』, 1958.10.25., 4면.

어 점차 한계에 부딪혔으며, “60년대 제일급에 속하는 몇 작가에게 『아베, (安部公房) 『다사이』(太宰治) 『오에』(大江健三郎) 등의 작품이 크게 작용했다”⁴⁶⁾는 당대 연구자의 진단은 한 시대의 문학사적 배경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의 기획 및 독자수용의 양상을 파악하는 작업은 4.19세대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터이다. 본고는 이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1960년대라는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이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과 일본번역문학에 대한 남한사회의 수용론을 분석하였다. 세대론에 기반을 둔 신구문화사의 설득논리는 세계문학이라는 구도 속에서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의 위상이 (재)설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일본문학 수용을 찬성/반대하는 논리 이면에는 그것이 비록 세대론이나 민족주의의 외장을 두르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문화(문학)에 대한 강한 열등의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번역문학에 대한 문단 내·외부의 수용론에 무게 중심을 두는 까닭에, 본 논문은 『한국전후문제작품집』과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이 당대 남한 사회에서 지니고 있었던 사회문화적 의미를 드러내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문학이라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남북구 전후문학 선집의 구성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1960년대 남한 사회에서 ‘전후성’이 의미 있는 어젠더(agenda)로서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터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46) 김윤식, 『개항1세기 한국과 일본 오늘의 좌표 (13)문학』, 『동아일보』, 1970.6.18., 5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새벽』, 『세대』, 『신동아』, 『중앙』
『한국전후문제작품집』(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집』(신구문화사)
『전후일본단편문학전집』(일광출판사), 『일본신예문학작가 수상작품선집』(청운사)
『일본문학선집』(지문각), 『현대세계문학전집』(신구문화사)

2. 논문과 단행본

- 가와무라 미나토, 유숙자 역, 『전후문학을 묻는다』, 소화, 2005.
강우원용, 『1960년대 일본문학 번역물과 한국』, 『일본학보』 제93집, 2012.11, 79-93쪽.
_____, 『1960년대 초기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일본소설의 번역물과 한국 독자』,
『일본학보』 제97집, 2013.11, 107-123쪽.
권태역·차승기 엮음, 『전후의 탄생: 일본, 그리고 '조선'이라는 경계』, 그린비,
2013.
김병철,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98.
로렌스 베누티, 임호경 역, 『번역의 윤리』, 열린책들, 2006.
박숙자, 『100권의 세계문학과 그 적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2집, 한국문학이
론과 비평학회, 2014.3, 77-113쪽.
박지영, 『1950년대 번역가의 의식과 문화정치적 위치』, 『상허학보』 제30집, 상허학
회, 2010.10, 351-396쪽.
염무웅, 『책읽기, 글쓰기, 책만들기』, 『근대서지』 제4호, 근대서지학회, 2011.12,
21-45쪽.
오길영,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역할: 제임스조이스를 중심으로』, 『근대영미소설』
18집 2호, 근대영미소설학회, 2011.8, 5-25쪽.
우촌기념사업회, 『출판과 교육에 바친 열정』, 우촌기념사업회출판부, 1992.
윤상인 외 3인, 『일본문학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소명출판, 2008.
이어령, 『저항의 문학』, 예문각, 1962.
_____, 『전후문학의 새물결』, 신구문화사, 1962.
이중호, 『1960년대 한국문학전집의 발간과 문학정전의 실험 혹은 출판이라는 투기』,
『상허학보』 제32집, 상허학회, 2011.6, 107-141쪽.
이한정, 『일본문학의 번역과 한국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제55집, 한국문학연구학

- 회, 2015.2, 7-51쪽.
- _____, 『일본문학 번역의 양상과 연구 방향』, 『일본학보』 제100집, 2014.8, 79-100쪽.
- 조영일, 『우리는 과연 세계문학전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작가세계』 22, 2010.6, 292-356쪽.
- 최원식·임규찬 편,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3.
- 한배호, 『한국정치사』, 일조각, 2008.
-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Abstract

The Translated Acceptance of Japanese Literature and Publication of Literary Anthologies in the 1960s

— Focusing on *the Anthology of Postwar Japanese Literature*

Lee, Jong-Ho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shows how Shingu book Publisher's Literary anthology of postwar Japan was translated, published and accepted in South Korea in the 1960s. With the April 19 revolution, Shingu book publisher made plans for *the complete series of Postwar World Literature. Anthology of Postwar Japanese Literature* [Ilbon jŏnhu munje jakp'umjip] was a cultural product for both the April 19 generations' aesthetic taste and desire of reading. Because of a strong aversion to Japanese culture, Shingu book publisher came to meet severe criticism from the public spheres. Based on the generation theory, Lee, Eo-Ryong, one of the major editors of *the complete series of Postwar World Literature*, persuaded critics persistently, claiming the even exchange of cultural valu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owever, under the historical differences between Postwar Korea and Postwar Japan, *Literary anthology of postwar Japan* [Ilbon jŏnhu munje jakp'umjip] failed to show the equality of cultural value. Although they seemed like a kind of generation theory or nationalism,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translated acceptance of Japanese Literature were based on the strong inferiority complex about Japan culture. Criticizing Literary circles, book markets, and Korean inner society, these arguments sometimes served as an opportunity of self-reflection.

(Key Words: 1960s, the April 19 Revolution, Translated Japan Literature, World Literature, Postwar Literature, Shingu book publisher, Anthology of Postwar Japanese Literature, Lee, Eo-Ryong, Generation theory, Acceptance theory, Inferiority complex about Japan culture, book market, translation)

논문투고일 : 2015년 6월 30일
심사일 : 2015년 8월 1일
수정보완일 : 2015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13일